

【P1-14】

일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만도에 따른 직업유형별 체력 식습관차이에 관한 연구

김정연^{1)*}, 윤석권²⁾, 김영옥²⁾, 장은재^{1,2)}, 배운정¹⁾, 김미자¹⁾¹⁾동덕여자대학교 비만과학대학원 비만관리학과, ²⁾동덕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The Study on the Difference of Physical Fitness and Diet Habit According to BMI and Occupation Status

Jung-Yeon Kim^{1)*}, Suk Kyan Yoon²⁾, Young-Ok Kim²⁾, Un-Jae Chang^{1,2)}, Yoon-Jang Bae²⁾, Mi-Ja Kim¹⁾¹⁾Department of Obesit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Obesity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136-714, South Korea, ²⁾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136-714, South Korea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창원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 체력 측정실에서 사업장 근로자 총 11,509명을 대상으로, 비만도 23이하를 기준으로 낮은 비만도로 하고, 비만도 24이상을 높은 비만도로 나누고 이들 각각에 비만도에 따른 직업유형을 생산직은 생산, 운수, 장비 종사자 및 단순 노무자 또는 기능 관련 근로자, 장치 및 기계조작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로 하였고, 사무직은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로 하였고, 이들의 비만도 측정, 체력 평가, 건강 습관,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비만도에 따른 직업군별 차이를 살펴보면 낮은 비만도는 생산직 남자 4,580명, 사무직 남자 1,305명, 생산직 여자 122명, 사무직 여자 336명으로 나타났고, 높은 비만도는 생산직 남자 3,660명, 사무직 남자 1,412명, 생산직 여자 53명, 사무직 여자 41명으로 나타났다. 체력수준면에서, 각각의 비만도에서 체력수준은 각각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해 6.5%(낮은 비만도 그룹), 4.5%(높은 비만도 그룹)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식사의 횟수에서, 각각의 비만도에서 식사의 횟수는 각각 생산직이 사무직에 비해 6.7%(낮은 비만도 그룹), 3.5%(높은 비만도 그룹)정도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아침 식사 시간의 규칙성에서 주 5회 이상의 응답이 각각의 비만도에서 아침 식사 시간의 규칙성은 각각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해 1.0%(낮은 비만도 그룹), 1.1%(높은 비만도 그룹)정도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짠 음식 섭취에서, 각각의 비만도 모두에서 짠 음식 섭취는 각각 생산직이 사무직에 비해 5.6%(낮은 비만도 그룹), 5.2%(높은 비만도 그룹)정도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생산직과 사무직과의 체력적인 차이나, 식습관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력을 높이고,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직무유형별 사업장내에서 식사관리, 운동프로그램 등의 조직적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